

“노래로 장난 안 쳐요…우린 지금 진지합니다”

“노래하는 그 순간, 우리는 진지합니다.”

동갑내기 개그맨 조세호(37)와 남창희가 그룹 ‘조남지대’를 결성해 가수로 데뷔했다. 4월28일 노래 ‘거기 지금 어디야’를 발표하며 각 19년차와 20년차인 이들이 올해 ‘신인가수’란 새 타이틀을 얻은 셈이다. 두 사람은 “쑥스럽다”면서도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한다. 뒤늦게 낯선 영역에 도전한 조세호와 남창희를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삼암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조세호

노래방 곡에 등재…목표 다 이뤘죠
로코베리가 우릴 안 버리는 한 계속

남창희

작년 ‘복면가왕’ 앨범 약속 현실로
데뷔 20주년…세호가 내게 준 선물

●“장난기 짝 빠른 노래, 웃기려는 의도 ‘0’”

이들이 부른 ‘거기 지금 어디야’는 이별을 맞은 한 남자의 애절한 마음이 담긴 정통 발라드곡이다. 그룹 로코베리가 작곡·작사·프로듀싱 등 곡 작업 전반을 도맡았다. 평소 일과가 끝나면 노래방에 달려가 발라드를 부르는 두 사람을 눈여겨보고 선풍 곡을 선사했다.

“원래 로코베리의 두 멤버 로코, 코난과 친하다. 무심결에 ‘코난 형이 주는 곡을 불러봤으면 좋겠다’고 한 말이 현실이 됐다. 로코베리가 ‘너희의 이별이 궁금하다’며 이야기를 듣고 이를 만에 곡을 썼겠다. 노래를 기반으로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작업하기도 해 신선했다.”(조세호)

두 사람은 서울 마포구 신촌 거리에서 처음으로 버스킹(거리 공연)도 했다. 다른



16년간 한결같이 서로를 응원하면서 활동해온 조세호(왼쪽)와 남창희의 그룹 조남지대는 그 우정의 결실이다. 대중을 웃기는 일을 잠시 내려놓은 두 사람은 “듣는 이들에게 우리의 진심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누군가의 것이 아닌 “우리 노래”를 부르니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됐다는 이들은 “노래를 부를 때 ‘장난으로 비치지만 애틋으면 좋겠다’는 생각 밖에 안 한다”고 고백했다. “노래를 준비하면서 장난기를 쏙 뺐다. 웃기려고 한 건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웃기다’는 반응이 많다. 우리의 진지함이 그렇게 보인 것 같다. 섭섭하나? 전혀 아니다.(웃음) 그저 개그맨으로서 쾌활한 모습 이면에 어느 사람들처럼 고독과 슬픔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다. 다양한 ‘실제의 우리’를 보여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다.”(남창희)

●“서로에게 ‘엔진’ 같은 존재”

조세호와 남창희는 그래서 “감히 ‘가수’로 불리는 것이 가당치 않다”며 손을 내젓는다. 노래방 곡 목록에 자신들의 노래가

등재된 것만으로도 “다 이뤘다”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로코베리가 우리를 버리지 않는 이상 계속 노래를 하고 싶다.(웃음) ‘계간 조남지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보다 잘 한다’ ‘신선하다’ 등 이번 활동에 놀라는 대중의 반응을 보고 힘을 얻었다. 둘이서 다양한 볼거리를 보여줄 수 있는 일도 계속 할 거다. 언젠가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 노래 커버 영상을 올리는 프로젝트도 해보고 싶다.”(조세호)

특히 올해 데뷔 20년차에 접어든 남창희는 “조세호가 내게 기념선물을 준 것 같다”며 고마워했다.

“작년 MBC ‘복면가왕’에서 ‘앨범으로 찾아 뵈겠다’고 한 말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몰랐다. 이번처럼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마다 조세호가 ‘함께 해보자’며 독

려해줬다. 덕분에 내 노래를 부를 기회도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으니 ‘참 잘 살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남창희)

실제로 2003년 처음 만나 16년의 세월을 함께 보내며 조세호는 남창희에게 “나를 움직이는 엔진” 같은 친구가 됐다. 남창희는 조세호에게 “어떤 걸 함께 해도 설레는, 매일이 궁금한 사람”으로 다가왔다. 그룹 ‘조남지대’ 프로젝트는 그 우정의 ‘결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이번 노래에 두 사람은 큰 욕심이 없다고 한다. “우리가 즐거우면 그 뿐”이라는 이들은 “듣는 사람에게 진심이 전해지면 더할 나위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웃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남창희

▲1982년 7월27일생 ▲2000년 SBS ‘기쁜 우리 토요일’로 데뷔 ▲2001년 MBC ‘연인들’로 연기 도전 ▲2002년 SBS ‘아인시대’ ▲2005년 SBS ‘프라하의 연인’ ▲2012년 tvN ‘코미디 빅리그’ ▲2013년 SBS ‘별에서 온 그대’ ▲2018년 tvN ‘미스터 션샤인’, MBC ‘토크 노마드-아깽없이 주도록’ ▲2019년 MBC에브리원 ‘주간아이돌’, KB S 쿨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 조세호

▲1982년 8월9일생 ▲2001년 예명 ‘암배추’로 SBS 6기 개그맨 데뷔 ▲2003년 KBS 2TV ‘개그콘서트’ ▲2006년 KBS 2TV ‘웃음충전소’ ▲2011년 본명 조세호로 활동 시작 ▲2012년 tvN ‘코미디 빅리그’ ▲2014년 SBS ‘툼메이트’·연예대상 뉴스타상 ▲2016년 MBC ‘우리 결혼 했어요’·방송연예대상 인기상 ▲2018년 MBC ‘무한도전’ 합류 ▲2018년 KBS 2TV ‘해피투게더 4’·연예대상 토크&쇼 부문 우수상 ▲2019년 tvN ‘유퀴즈 온더 블럭’, MBC에브리원 ‘주간아이돌’ 등

마동석-키아누 리브스 마블 새 영화서 만나

〈‘이터널스’〉

배우 마동석이 할리우드 스타 키아누 리브스와 특별한 인연을 맺어가고 있다. 한 차례 협업 기회가 아쉽게 불발됐지만 인연은 끊이지 않고 이어질 전망이다.

마동석이 출연하는 마블스튜디오의 새 히어로 시리즈 ‘이터널스’에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 물망에 올랐다. 3일 미국 스크린 란트 등 외신은 “키아누 리브스가 ‘이터널스’ 출연을 통해 마블과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알렸다.

마동석처럼 키아누 리브스는 그동안 마블스튜디오가 여러 차례 러브콜을 보내면서 공을 들인 배우다. 한때 ‘닥터 스트레인지’의 유력한 주연 물망에 오를 정도로 마블의 신임을 얻었고, ‘캡틴 마블’ 참여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사정상 이뤄지지 않았다. 마동석도 2016년 ‘부산행’ 이후 마블의 꾸준한 러브콜 아래 ‘이터널스’로 협업하게 됐다.

마동석과 키아누 리브스는 사실 ‘존 워’로 먼저 만날 뻔했다. ‘존 워’ 시리즈는 키아누 리브스의 액션 영화다. 마동석은 “지난해 ‘존 워3’ 제작진으로부터 캐스팅 제안을 받았지만 오래 전부터 약속하고 준비해온 ‘악인전’ 촬영 일정과 겹쳐 응하지 못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6월26일 개봉하는 ‘존 워3:파라렐룸’이 바로 그 작품이다.

두 사람의 새로운 조우 가능성으로 이목을 끄는 ‘이터널스’는 초인적인 힘을 지닌 종족 이터널스의 이야기다. 내년 11월 개봉을 목표로 연내 촬영을 시작한다.

이해리 기자 goli1024@donga.com

‘기생충’ 장혜진, 내친 김에 안방으로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 아내 역을 맡은 연기자 장혜진을 향한 관심이 안방극장으로 퍼지고 있다. 비교적 낯선 얼굴에 대한 호기심과 시선을 끌어당기는 연기력이 드라마 속 활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혜진은 개봉 첫 주만에 330만여 관객을 동원한 ‘기생충’으로 단번에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주인공인 송강호·이선균·최우식 등에 비해 덜 알려졌지만 맛깔스러운 연기력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극중 평범한 것 같으면서도 비범하고, 결결한 말투를 쓰는 주부의 모습을 완벽하게 소화해 자신의 매력을 공개할 무대를 넓힐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에 그의 연기를 안방극장에서도 보고 싶어 하는 시청자가 늘어나면서 드라마 제작사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제작사들이



장혜진

장혜진의 동향을 살피며 그를 캐스팅하려는 움직임を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생충’을 통해 대중성과 인지도를 얻으면서 제작사가 그를 캐스팅하는 데 망설임 이유가 사라진 셈이다.

장혜진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와 출신으로 연극무대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

맛깔스러운 연기…존재감 과시
소속사 측 “드라마 러브콜 쇄도”

후 상업무대로 발을 옮겨 영화 ‘시’ ‘밀양’ 등에 단역으로 출연하며 경력을 쌓았다. 상대적으로 드라마 출연 기회가 적어 시청자와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영화 관객과는 꾸준히 소통해왔다.

장혜진에 대한 시청자의 궁금증이 높아지면서 그가 ‘기생충’ 개봉에 앞서 출연한 KBS 2TV ‘닥터 프리즈너’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극중 남궁민이 한 대학병원 응급실의 에이스로 불렸을 당시 함께 근무한 수간호사로 출연해 녀석 좋고 푸근한 인상을 보여준 바 있다.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 관계자는 “영화 개봉 이후 기대 이상으로 많은 드라마 출연 제의를 받고 있다”며 “그동안 연극과 영화 중심으로 활동해왔지만 드라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멜론, 저작권료 빼돌린 혐의…검찰 압수수색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플랫폼인 멜론이 창작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투명한 저작권료 책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여전한 가운데 최대 규모 음원사이트와 관련한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 김태은)가 5월27일 서울 강남구 소재 로엔터테

인먼트 사무실(현 카카오키오M)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3일 밝혀졌다. 검찰은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하고 멜론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유령 음반사를 설립해 저작권자들의 저작권료 일부를 가로챌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멜론은 2009년 곡당 음원 수익을 46%(멜론) 대 54%(저작권자)의 비율로 나눠 정산했지만 유령 음반사를 통해 분배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54% 가운데 일부를 빼돌린 혐의다. 검찰은



연예뉴스 HOT 4

양현석 성접대 의혹 경찰 내사 착수



양현석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3일 “(성접대)제보 내용을 확인했고, 사실관계 확인 조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내사 진행 여부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5월27일 MBC ‘스트레이트’는 양 대표가 동남아 재력가들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YG는 이를 부인했다.

데뷔 6주년 ‘BTS 페스타’ 팟파르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이 3일 데뷔 6주년을 맞아 팬들과 콘텐츠를 교류하는 ‘2019 BTS 페스타(FESTA)’를 시작했다. 이날 자정을 기해 공식 SNS를 통해 시작된 ‘페스타’는 멤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상과 솔로 믹스테이프 뮤직비디오 등으로 구성됐다. 방탄소년단은 13일까지 사진전, 안무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공개한다.

정은지 “수입으로 동생 뒷바라지”



정은지

가수 겸 연기자 정은지가 “고3인 동생의 교육비를 담당한다”고 밝혀 화제다. 정은지는 3일 오후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주연 영화 ‘0.0MHz’ 홍보차 출연한 그는 연간 수입에 대해 묻자 “주 수입원은 그룹 에이핑크나 솔로 공연이다”면서 “동생 뒷바라지할 정도는 된다”면서 “동생이 (남)녀무 자랑스럽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문희준·소울 부부 ‘슈돌’ 출연 논란



문희준(왼쪽)·소울 부부

그들 크레용팝 출신 소울과 문희준 부부의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출연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들의 육아 일상을 볼 수 있어 반갑다는 반응도 있지만, 일부에선 과거 문희준이 “가족은 절대 공개하지 않겠다”던 발언에 빗대 “말을 바꿨다”고 지적한다. 문희준은 지난해 2월 아내의 이름이 포털 검색어에 등장하자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해리 기자